

SK에너지, 페루 LNG 공장 준공

최태원 회장 5일간 현지 방문 ... 정부 고위인사와 자원개발 논의도

SK에너지가 페루에서 LNG(액화천연가스) 공장을 준공했다.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이 SK에너지의 페루 팜파 멜초리타에 위치한 LNG 공장 준공식에 참석하기 위해 6월8일부터 5일간 현지를 방문했다고 발표했다.

최태원 회장이 페루를 방문한 것은 2008년 이후 2년만이다.

준공식에는 알란 가르시아 페루 대통령과 페루 정부의 유력인사가 참석할 예정으로 최태원 회장은 고위인사들과 자원 개발과 관련해 면담할 가능성이 크다고 SK그룹은 전망했다.

페루는 SK에너지의 해외 자원개발 물량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6/11>